

Outline

경의선 숲길은 경의선이 지하화 되면서 조성된 도심속 녹지공간입니다. 가좌역부터 효창공원역까지 길게 이어진 6.3km 길이의 녹지공간인데, 이 숲길 주변은 각 구의 특성에 따라 사이트 특성이 다양한데, 가좌역근처는 아파트단지와 연립주택으로 구성된 주거단지가 주를 이루며, 홍대역 근처는 카페와 음식점들이 즐비한 상업단지입니다. 그리고 공덕역 근처는 오피스텔과 회사들이 주를 이루는 업무단지면서 주거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Problems

경의선의 철길 구간에 조성된 경의선 숲길은 조성이 된지 일년이 채 되지 않아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주민들은 취객, 쓰레기, 소음으로 인한 삼중고를 겪고 있다. 휴일마다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는 산더미를 이룰 정도며 아랑곳 하지 않고 버리는 시민들과, 술판을 벌이는 사람들로 술병들과 음식물 쓰레기 또한 문제가 되고있으며 소음 또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The Silent Project
Recycling and Silent Cinema

How to Solve?

‘Recycling Box’는 사람들의 분리수거를 도와주는 장치이다. 하나의 재미 요소로 접근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디자인하여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적절한 보상을 통해 문제점을 시사하면서 사람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Silent Cinema’ 파빌리온은 공원 곳곳에 위치해 있다. 휴식 공간을 기본 목적으로 하며, 주변 환경과 이용객에 따라 낮에는 다양한 행태와 프로그램들로 이용된다. 밤에는 영화관으로 바뀌는데 한가지 다른 점은 이어폰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폰을 사용함으로써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Silent Project’는 하나의 캠페인으로서 쓰레기문제와 소음 문제를 시사하며, 시민들이 건강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적 역할을 한다.

How to Use?
Recycling Box

리사이클링 박스는 플라스틱, 캔, 일반쓰레기를 분리하여 버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때 쓰레기를 버린 후 옆에 마련된 버튼으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Silent Cinema’를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이 발송된다.

리사이클링 박스에 쓰레기를 분리하여 버린다.

쓰레기를 버린 후 옆에 있는 버튼으로 휴대폰 번호를 전송한다. 추첨을 통해 밤에 상영하는 영화 관람 티켓이 발송된다.

낮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밤이 되면 영화관으로 바뀌어 추첨을 통해 발송된 티켓으로 관람할 수 있다.

How to Solve?

1. Recycling Box



‘리사이클링 박스’는 사람들의 분리수거를 도와주는 장치이다. 플라스틱, 캔, 일반쓰레기를 분리하여 버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때 쓰레기를 버린 후 옆에 마련된 버튼으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추첨을 통해 ‘Silent Cinema’이용 티켓이 발송된다.

‘리사이클링 박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쓰레기 문제를 시사하고, 건강한 문화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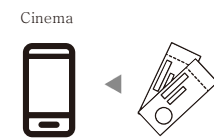
System

Recyc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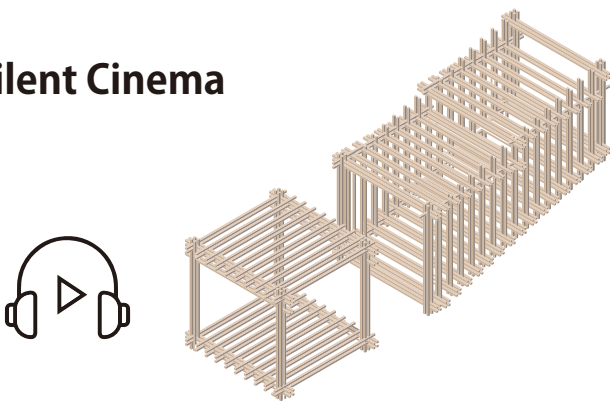


Cinema Ticket

추첨을 통해 모바일로 전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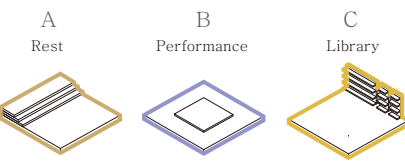
2. Silent Cinema



‘Silent Cinema’라는 파빌리온은 경의선 숲길 곳곳에 위치해 있으며, 낮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며, 구조 또한 위치의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바뀔 수 있다. 밤이 되면 이 파빌리온은 ‘Silent Cinema’로 이용된다. 이는 이어폰을 이용하여 소음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영화를 볼 수 있는 파빌리온이다.

Programmes

Day time



Night time

